

일본 보험회사의 풍수해 리스크 대응 동향과 주요 사례

김연희 연구원

요약

일본 금융청(FSA)은 2026년 7월 「풍수해 리스크에 관한 금융기관의 대응 동향 및 과제」를 발표함. 일본 보험회사는 지역별 위험평가와 기후 시나리오 분석으로 풍수해 리스크 평가를 고도화하고, 재보험과 대재해채권을 통해 위험을 이전·분산하고 있음. 한편 손해보험회사는 재해 예방과 복구 지원을, 생명보험회사는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지원을 중심으로 고객기업의 대응역량을 강화함. 다만, 사업장·공급망, 복합재해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여 풍수해 리스크 분석의 과제로 확인됨

- 일본 금융청(FSA)은 2022년 7월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 방침」을 제정한 데 이어, 2026년 7월에는 풍수해에 초점을 맞춘 「풍수해 리스크에 관한 금융기관의 대응 동향 및 과제」를 발표함¹⁾
 - 금융청은 기후재해 심화가 기업의 사업활동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기후관련 리스크 관리와 고객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함
 - 2026년에는 풍수해 심화와 수재(水災) 보험금 증가에 주목하여, 생명·손해보험회사를 포함한 17개 금융기관의 리스크 분석·관리, 위험인수, 고객지원, 업무연속성계획(BCP) 등의 현황을 조사함²⁾
- 일본 보험회사는 지역별 위험평가와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해 풍수해 위험을 파악하고 예상손실을 정량화하는 등 리스크 평가를 고도화하고 있음
 - MS&AD 보험그룹³⁾은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의 강도와 발생빈도가 손해(Loss)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고, 일본 지역의 홍수 위험 분석 단위를 90m에서 30m로 세분화하여 위험도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함⁴⁾⁵⁾
 - SOMPO재팬은 건물이 위치한 시구정촌별 수재 위험을 1~5등급으로 세분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해 1등급은 평균 약 6% 낮고 5등급은 약 9% 높은 보험료 수준을 적용함⁶⁾⁷⁾
 - SOMPO재팬은 기상청·대학 등이 공동 구축한 기후 시뮬레이션 데이터베이스(d4PDF)를 통해 평균 기온이 2℃·4℃ 상승할 경우의 자연재해 변화를 분석하고,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 시나리오 분석으로 태풍 1건당 손해액이 최대 50% 증가할 가능성을 정량화해 위험인수와 재보험 전략 수립에 활용함⁸⁾

1) 금융청(2026. 7.), 「風水害リスクに関する金融機関の取組の動向や課題」

2) 수재(水災)는 홍수, 범람, 토사 등 물과 관련된 피해를 의미하고, 풍재(風災)는 바람으로 인한 피해를 의미하며, 태풍으로 인한 홍수 피해는 수재에 포함됨

3) MS&AD 보험그룹은 보험지주회사로, 산하에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과 아이오이닛세이도와손해보험 등을 두고 있으며, 양 사는 2027년 4월 '미쓰이스미토모해상아이오이손해보험'으로 합병할 예정임

4) MS&AD(2025. 10.), 「TCFD・TNFDレポート2025(グリーンレジリエンスレポート)」; 고온실가스 배출경로인 RCP8.5(4℃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2050년 태풍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은 강도 변화에 따라 약 5~50% 증가하고, 발생빈도 변화에 따라 약 30% 감소~28%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5) MS&AD(2024. 1.), 「全世界の気候変動リスク・洪水リスク評価が可能なプラットフォーム「洪水リスクファインダー」をリリース」

6) SOMPO Japan(2025. 9.), 「THE 家財の保険 個人用火災総合保険 パンフレット兼重要事項等説明書」

7) 일본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2023. 6.), 「水災料率の細分化について」; 6%·9%는 수재료율 미세분화 대비 참고순율 기준이며, 실제 보험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또한, 평가된 풍수해 리스크를 재보험과 대재해채권 등을 통해 이전·분산하는 한편, 위험 수준을 보험료와 자기 부담금 등 보험 인수 조건에 반영함

- 도쿄해상홀딩스는 2026년 3월 버크셔 해서웨이와 포괄적 비례재보험(WAQS)⁹⁾ 협력에 합의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보험 인수여력을 확보하고, 자연재해를 포함한 인수위험의 손익 변동성을 완화함¹⁰⁾
-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과 아이오이닛세이도와손해보험은 2024년 3월 자연재해 리스크를 자본시장에 이전하기 위해 특별목적회사(SPC)를 통해 총 2억 달러 규모의 대재해채권 ‘Tomoni Re 2024’를 발행함¹¹⁾
 - 두 회사는 자연재해 리스크에 대해 4년간 보장받는 구조를 마련했으며,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은 태풍·홍수로 인한 재해별 손실을, 아이오이닛세이도와손해보험은 태풍·홍수의 재해별 손실과 지진으로 인한 3년간 누적손실을 기준으로 보장받도록 설계하여 자연재해 리스크를 자본시장에 분산함
- MS&AD 보험그룹은 풍재·수재 등 자연재해 증가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 증가를 반영해 보험료를 조정하고 있으며, 풍재의 경우 건물·생활용품에 각각 10만 엔, 수재의 경우에는 건물에 5만 엔·생활용품에 1만 엔의 자기 부담금을 설정하는 등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을 조정하여 풍수해 리스크를 보험 인수 단계에서 관리함¹²⁾

○ 고객기업의 풍수해 대응 지원은 업권별로 차이가 있으며, 손해보험회사는 풍수해 예방부터 복구까지 지원하는 반면, 생명보험회사는 고객기업의 재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 BCP) 수립 지원 등에 중점을 둠

- 도쿄해상홀딩스는 보험금 지급·보험 인수 데이터와 ID&E 컨설팅그룹의 공학기술을 결합해 침수 피해 원인조사와 정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방수벽·방수문 등 재발 방지 대책까지 지원하는 ‘Build Back Better’를 추진함¹³⁾
- 아이오이닛세이도와손해보험은 보험회사가 축적한 사고데이터에 기상예측과 현장 침수정보를 결합해 시설별 침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정보 제공을 넘어 고객의 대피·설비 이동 등 선제적인 방재활동을 지원함¹⁴⁾
- 미쓰이스미토모해상 아이오이생명은 중소기업의 자연재해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업무연속성계획(BCP)과 사업 계속력 강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계획 수립 방법과 관련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¹⁵⁾

○ 다만, 일본 금융청(FSA)은 본사 외 주요 사업장과 공급망, 복합재해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풍수해 리스크 분석의 고도화 필요성을 제시함

- MS&AD 보험그룹은 수재 리스크 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사·공급업체의 수재 위험과 대응 시점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보험금 지급을 넘어 고객기업의 사전 위험관리까지 역할을 확대함¹⁶⁾

8) SOMPO Holdings(2025. 7.), “Sompo Holdings Integrated Annual Report 2025”

9) 포괄적 비례재보험(Whole Account Quota Share; WAQS)은 출재보험회사가 사전에 정한 전체 보험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보험료와 손해 등의 일정 비율을 재보험회사에 이전하는 비례재보험 방식을 의미함

10) Tokio Marine Holdings(2026. 5.), “東京海上グループの経営戦略”

11) MS&AD(2024. 3.), “大災害債「Tomoni Re 2024」をグループ共同で発行”

12) MS&AD(2024. 10.), “GK すまいの保険”

13) Tokio Marine Holdings(2026. 5.), “東京海上グループの経営戦略”

14) MS&AD(2025. 8.), “浸水対策の高度化に向けた浸水予測ソリューションの実証実験を開始”

15) 鹿児島県(2026. 7.), “中小企業の事業継続力強化に関する支援について”

16) MS&AD, “BCPサポートツール”(https://www.ms-ins.com/solution/bcp-support/)